

지역 소식통

‘지평선 농두렁놀두렁’ 김제 농촌관광 아카데미

김제시와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은 오는 14일과 21일 부량면 벽골계 체험휴양마을에서 농두렁 놀두렁 농촌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평선 농두렁놀두렁! 김제 농촌체험여행 프로그램’은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김제시 관내 농촌관광자원을 융복합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촌관광 아카데미는 김제관역 10개 마을을 위원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의 이해, 농촌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관광 융복합, 시나리오 기획 및 코칭, 응급 처치교육 등 김제 관광 가이드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카데미를 통해 참여 마을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젊은 청년 농촌 관광 가이드 육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발굴하고자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농어업회의소 농어업인 위한 인문학 강좌

완주군농어업회의소(대표 송병주)가 농어업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12일 (사)완주군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어업인들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농어업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농어업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4일부터 9월 25까지 4회에 걸쳐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완주군 농업인회관 3층 강당에서 오후 7시에 시작하며, 매주 금요일 총 4개 강좌가 이뤄진다.

14일 첫 강좌는 원광대 김은진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와 우리시대의 농업’을 주제로 진행된다. 28일 두 번째 강좌는 ‘정약용의 삶으로 보는 실학이야기’, 9월 11일 ‘동학농민혁명과 역사 바로보기’, 9월 25일 ‘농정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인문학 강좌는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사)완주군농어업회의소에 문의(063-262-5714)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바다의 날’ 기념 행사 성료

김제시 - 군산해수청 공동 주관, ‘민·관합동 범시민 참여 해양 정화 운동’ 진행

김제시는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아 12일 (구)심포항 부근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주관으로, 클린 바다 캠페인 및 심포 마리아 예정지와 횡단단지 주변 수변지구 정화작업 등 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과 김제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내 6개 어촌계 어업인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실외에서 100여명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방정부적 중점사항인 민관합동 범시민 참여 해양정화 운동에 맞추어 지역 주민과 어촌계, 김제수협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 수산단체와 유관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가 있는 제25회 바다의 날 행사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이며,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아 최종후보지인 심포 마리아항만 예정지에서 지역 주민과 어업

인, 공무원 등 100여명이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주고 받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장마로 넘쳐나는 쓰레기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페어구 등 다양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선진해양 시

민의식으로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김제시가 앞장서자고 호소하였다.

금번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하여 김제시는 새만금 해양 중심도시로서의 깨끗한 바다 관리 이미지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커져가는 해양산업과 연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었으며 다가오는 새만금시대에 해양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민관합동 범시민 화합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 국제로타리3670봉동로타리클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o근Do근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의 꿈을 위해 뭉쳤다”

완주군 봉동읍,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2개 단체 업무협약

완주군 봉동읍이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뭉쳤다.

12일 봉동읍은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완, 국인숙)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회장 이용국), 국제로타리3670봉동로타리클럽(회장 이승현) 3개 단체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3개 단체는 Do근Do근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Do근Do근 소원을 말해봐는 관내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소원을 담은 사연을 접수해 소원을 이뤄주

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지하는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사업이다.

업무협약과 함께 국제로타리3670지구 봉동로타리클럽에서 200만원,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쾌척했다.

강명완 봉동읍장은 “지역복지는 너,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지원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꿈이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통해 배운 재능 기부해요”

완주군 상관면 지류빌 아파트 공동체, 모기 퇴치제 제작·나눔

완주군 아파트 주민들이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배운 재능을 기부로 꽃피웠다.

12일 완주군 상관면 지류빌 아파트 공동체 ‘함께하는 상관’이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체 27개 마을에 장난감에 모기퇴치제 1000개를 만들어 기부했다.

아파트 공동체 함께하는 상관은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들은 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아로마

자격증, 친환경 EM 등을 배웠고, 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유용한 모기퇴치제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소외계층에게 밀반찬 나눔, 요양원 손 마사지 봉사에 이어 올 해는 손세정제를 만들어 예은노인요양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누기도 했다.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모기퇴치제를 제작해 나눴다.

지류빌 르네상스 봉사단 관계자는 “함께 모여 만드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웃음짓는 모습을 보며 봉사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 2018년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2년간의 임기만료에 따라 총 19명의 민간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위원장들은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간 김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19개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 10~25명으로 구성하여 총 346명의 위원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복지문제를 논의,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박준배 김제시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봉사자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19명의 민간위원장을 필두로 신규 위원들의 활발한 이웃사랑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인구정책 조례 시행 1년, 자체 성과 진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2일 3층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부읍면장, 사무장 등 인구정책 관계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조례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민관우수협업사례 발표와 및 지침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점 결과 보고·백구면, 공덕면, 성덕면, 요촌동순의 민관우수협업사례 보고·출산지원 정책 보고·인구정책 지침 시달 및 질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자체 진단과 더불어 앞으로 인구정책, 출산장려 추진 방향을 상호 공유하는 등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나 김제시는 지난 상반기에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사회 공동 대응을 위해 읍면동별 1인구특화시책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소개된 백구면 출산장려추진 사업·공덕면 온마을 출생 축하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성덕면 HAPPY 성덕 제2고향 만들기 정착지

원, 요촌동 김제사랑 I ♥365 요촌동 인구정책으로 인구유입 활성화 사업을 통한 출산은 온마을이 축하해주고 공동체 활동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읍면동 실무담당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김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관 협업 인구특화사업 성과 창출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인구정책 묻고 답하기를 통해 평소 모호했던 인구정책 실무를 명쾌하게 풀어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전국 축소도시 12곳에 포함될 만큼 10년전에 비해 2만여 명이 급감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속에서 우리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김제, 살기좋은 김제를 위해 결혼축하금 1천만원 지원 등 5개 패키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청년들이 김제에 정착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